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로마서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²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오래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³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아드님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⁴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때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⁵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⁶여러분 자신도,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드는 사람들입니다.

⁷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⁸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⁹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드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¹⁰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¹¹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²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³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거둔 것과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⁴나는 헬레니즘 문명권에 드는 사람^{**}에게나 그 문명권에 들지 못하는 미개인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¹⁵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애타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¹⁶나는 기쁜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¹⁷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 1:2 성경 구약 성경.

† 1:3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1:5 내가 글자 그대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울이 공적 입장에서 쓰느라고 ‘나’ 대신에 ‘우리’ 라고 썼으리라고 생각한다.

¶ 1:5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7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른다.

** 1:14 헬레니즘 문명권에 드는 사람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 사람’.

믿음으로 끝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치시려는 것입니다. 19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만한 것은 너무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하나님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탄한 데로 빠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2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어리석습니다. 23 그래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우상을 택하였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정에 빠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데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버리고, 그것 대신 거짓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 관계는 버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부자연스러운 성 관계를 택하였습니다. 27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 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망측한 짓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28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네의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에 그들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살기와 다툼과 사기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30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잘난 체합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피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31 그들은 분별력도, 신의도, 따뜻한 마음씨도, 자비도 없습니다. 32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계속하여 저지를 뿐 아니라,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

2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누구이든지간에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든지,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4 또는 당신을

†† 1:17 의인은...살 것이다 합 2:4.

‡‡ 1:17 성경 구약 성경.

¶¶ 1:20 신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회개 § 5 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십니까? 5 당신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벌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에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8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으며 진리를 마다하고 악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릴 것입니다. 9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 † 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10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리실 터인데, 먼저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2 율법 ‡ 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하다고 판결을 내려 주실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4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15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꼭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양심 또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16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터인데,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율법

17 그러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18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안다고 자신합니다. 19 당신은 자신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의 빛이며, 20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에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 그런 당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22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미워하는 당신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23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신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 그것은, “너희 유대 사람들 때문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25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이 받은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26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할례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27 당신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깁니다.

§ 5 2:4 회개 이때까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을 뜻한다.

* 2:6 각 사람에게...것입니다 시 62:12; 잠 24:12.

† 2:9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2:12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2:24 너희...당한다 사 52:5; 겔 36:22.

그러므로 비록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²⁸ 겉으로 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²⁹ 속마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참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단순히 율법에 적힌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3 그렇다면, 유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할례에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²예,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아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³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⁴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성경⁵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법정에 서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⁵우리가 저지르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는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⁶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⁷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허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서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 받아야 하는가?” ⁸그렇다면 아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⁹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¹⁰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¹¹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¹²모두가 주께 등을 돌리고,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¹³“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 3:4 성경 구약성경.

**3:4 시 51:4.

†† 3:9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3:11 하나님을 찾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과 지시를 구한다는 뜻인 경우가 있다.

¶¶ 3:12 시 14:1-3.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 §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른다.”*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미움의 말로 가득 차 있다.”†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16 간 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19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21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 주셨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6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 † 사는 사람을 받아 주시는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공정하시려는 것입니다.

27 그렇다면 자랑할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 우리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 주심을 얻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9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대 사람 ‡ ‡ 을 받아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방

§ § 3:13 시 5:9.

* 3:13 시 140:3.

† 3:14 시 10:7.

‡ 3:17 사 59:7-8.

¶ 3:18 시 36:1.

§ 3:19 아무도…없으며 글자 그대로는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 3: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 † 3:26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는 ‘예수의 믿음으로’.

‡ ‡ 3:30 유대 사람 글자 그대로는 ‘할례 받은 자들’.

사람[¶]도 믿음을 통하여 받아 주실 것입니다.³¹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 버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모범

4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따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 주셨다면, 그는 한번 자랑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³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⁴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겨집니다.⁵ 그러나 일은 하지 않으나, 약한 사람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니다.⁶ 다윗[‡]도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⁷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⁸ 주께서

그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⁹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¹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입니까, 아니면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까.¹¹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으로, 할례라는 표적[§]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믿으면서도 할례는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 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는 것입니다.¹²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 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¹³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¹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면,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 **3:30 이방 사람** 글자 그대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 **4:1 아브라함**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람의 조상.

* **4:1 그렇다면...말해야겠습니까** 또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육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 **4:3 아브라함이...주셨다** 창 15:6.

‡ **4:6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4:8 시 32:1-2.**

§ **4:11 표적** 겉으로 드러난 형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¹⁵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¹⁶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에 그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곧 모세의 율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¹⁷ 성경**에도 “나는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 조상으로 삼았다.” ‡‡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¹⁸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지게 되리라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¹⁹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백 살이어서,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²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²¹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²²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받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 § ²³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²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을 믿는 우리도 받아 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²⁵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과의 화해

5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²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³ 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겪노라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 ⁴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⁵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⁶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악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⁷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어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¹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 4:17 성경 구약 성경.

† † 4:17 민족의 또는 ‘이방 사람의’.

‡ ‡ 4:17 나는…삼았다 창 17:5.

¶ ¶ 4:18 네 자손이…많아질 것이다 창 15:5.

§ § 4:22 하나님께서…여기셨습니다 창 15:6.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¹¹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¹²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¹³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 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아담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¹⁵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¹⁶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심판이 뒤따랐지만, 많은 죄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¹⁷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살아서 다스리겠습니까!

¹⁸ 아담이 한 번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¹⁹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²⁰ 율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²¹ 전에는 죄가 죽음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6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²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³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⁵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⁶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놓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⁷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⁸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⁹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시는 힘이 없습니다. ¹⁰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¹¹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¹²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¹³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¹⁴죄가 더는 여러분을 다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¹⁵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¹⁶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¹⁷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의 본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 본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¹⁸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¹⁹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²⁰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²¹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²²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²³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혼의 예

7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²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³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은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⁴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⁵지난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 살 때에는, 죄로 가득 찬 여러 열정이 우리 몸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였습니다. 이 열정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⁶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와의 싸움

⁷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⁸ 그런데 죄는, 이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넣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⁹ 전에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되살아나고¹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다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다주었음을 알았습니다.¹¹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으며, 또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습니다.

¹²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¹³ 그러면 이렇게 선한 것이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¹⁴ 우리는 율법이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¹⁵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¹⁶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¹⁷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¹⁸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힘은 없습니다.¹⁹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²⁰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²¹ 여기에서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할 때에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²²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²³ 그러나 내 몸 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²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 내겠습니까?²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²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 7:7 탐내지 마라 출 20:17; 신 5:21.

† 7:7 계명 율법 가운데 주로 십계명을 가리킨다.

‡ 8:1 정죄 죄가 있다고 판결 받는 것.

통하여 당신[¶]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³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을 잃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결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입으신 사람의 몸을 써서 죄를 정죄하고 벌하셨습니다.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므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⁵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⁶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가짐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⁷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⁸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⁹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¹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¹¹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 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¹²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빛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¹³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저지르는 행실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¹⁴ 하나님의 영^{††}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¹⁵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 아버지!” 라고 외칩니다.¹⁶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¹⁷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려면, 그분의 고난 또한 나누어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¹⁸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 주실 영광과 견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¹⁹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²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²¹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 8:2 당신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나’ 라고 되어있음.

§ 8:3 정결 제물 다른 번역판에서는 ‘속죄 제물’로 번역함.

** 8:9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 8:14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 8:15 아바 ‘아빠’ 라는 뜻의 아람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2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처럼,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3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첫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4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25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그것을 기다립니다.

26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 소리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살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8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만이 ¶ ¶ 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 주시며, 받아 주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1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3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어찌 아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 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34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35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 § § 나 기근이나 험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36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는 영들이나, 현재의 어느 것도, 미래의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39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 ¶ 8:29 만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나누어 가지신 분이라는 뜻일 것이다.

§ § 8:35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 8:36 성경 구약성경.

† 8:36 시 44:22.

하나님과 유대 민족

9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²곧, 내게는 내 동족 때문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³그들은 내 형제자매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동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⁴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⁵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⁶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⁷그리고 아브라함 ¶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 라고 하셨습니다. ⁸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⁹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¹⁰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¹¹⁻¹²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 † 하나님께서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바탕을 둔 당신의 계획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바탕을 둔 것입니다. ¹³성경 † † 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 ¶

¹⁴우리가 이 일을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¹⁵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 § ¹⁶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¹⁷성경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¹⁸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고집스럽게 만드십니다.

† 9:5 그리스도는...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9:7 아브라함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 9:7 이삭의...불릴 것이다 창 21:12.

** 9:9 이듬해...있을 것이다 창 18:10, 14.

† † 9:11-12 형이...섬길 것이다 창 25:23.

‡ 9:13 성경 구약성경.

¶ ¶ 9:13 내가...미워하였다 말 1:2-3.

§ § 9:15 나는...불쌍히 여기겠다 출 33:19.

* 9:17 나는...알리려는 것이다 출 9:16.

19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설 수 있습니까?”
 20 그러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옹기장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한 덩이로는 특별한 일에 쓸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덩이로는 보통으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22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3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보여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4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25 호세아의 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었던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27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8 이는,

하나님께서 빠르고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9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을 조금 남겨 두셨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 9:20 진흙 항아리가...말할 수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어 판에 나오는 이사야 29장 16절.

[‡] 9:24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9:25 호 2:23.

[§] 9:26 호 1:10.

^{**} 9:27 이스라엘 유대 나라(민족).

^{††} 9:28 사 10:22-23.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³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³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짓는 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³² 어찌하여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여기고 그 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³³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의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과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²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³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⁵ 모세는, 율법을 지키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이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⁶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에 관하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⁷ “또는 ‘누가 지하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⁸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다. 그분의 말씀은 네 입 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⁹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¹⁰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¹¹ 성경은 또 말합니다.

[‡] **9:29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도 악하여 하나님이 파멸시킨 소시들 (창 19).

[¶] **9:29** 사 1:9.

[§] **9:33 시온**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

^{*} **9:33 돌, 바위** 이사야서 8장 14-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인 하나님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비교할 것). 우리는 그 돌(그리스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 **9:33** 사 8:14; 28:16.

[‡] **10:5 이것들을…살 것이다** 레 18:5.

[¶] **10:6 너는 마음속으로…말하지 말아라** 신 30:12-13.

[§] **10:7 “또는…말하지 말아라** 신 30:12-13.

^{**} **10:8 성경** 구약성경.

^{††} **10:8 하나님의 말씀은…네 마음속에 있다** 신 30:14.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12 성경이 ‘누구든지’ 한 것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¹³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¹⁴ 그러나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¹⁵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라고 쓰인 것과 같습니다.

¹⁶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¹⁷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¹⁸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 ¶}

¹⁹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이 아닌 자들을 써서

너희가 샘내게 하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을 써서
너희가 화내게 하겠다.”[§]

²⁰ 그리고 이사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였다.”^{**}

²¹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려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구나!”^{† †}

^{‡ †} 10:11 누구든지...않을 것이다 사 28:16.

^{¶ ¶} 10:12 이방 사람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 사람’.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은 모든 이방 사람, 곧 유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 10:13 주님의...구원을 받을 것이다 올 2:32.

* 10:15 기쁜 소식을...반가운 일인가 사 52:7.

† 10:16 주여!...믿었습니까 사 53:1.

[‡] 10:18 성경 구약성경.

^{¶ ¶} 10:18 시 19:4.

[§] 10:19 신 32:21.

** 10:20 사 65:1.

† † 10:21 사 65:2.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11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²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 엘리야 ^{¶¶}에 관한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³ “주님,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 ^{§§}도 헐어버렸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칠천 명의 사람을 남겨 두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바알 ^{††}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 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⁶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⁷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찾으려 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⁸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다.” ^{¶¶}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

⁹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시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이 되고

천벌이 되게 하십시오.

¹⁰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짐을 지워

언제나 짊어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

¹¹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뎠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디뎠 때문에 이방 사람 ^{††}에게

^{‡‡} **11:2** 성경 구약성경.

^{¶¶} **11:2**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11:3**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칠 때 쓰기 위해 돌로 쌓아 만든 단.

^{*} **11:3** 주님... 찾고 있습니다 왕상 19:10, 14.

^{††} **11:4**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신의 이름.

[‡] **11:4** 내가... 사람들이다 왕상 19:18.

^{¶¶} **11:8** 사 29:10.

^{§§} **11:8** 신 29:4.

^{**} **11:10** 시 69:22-23.

^{††} **11:11**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새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¹² 그들의 헛디딤으로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손실로 이방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¹³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낸 사도로, 내가 맡은 일을 널리 알리려고 애씁니다. ¹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시새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¹⁵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¹⁶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반죽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남은 밀가루 반죽도 모두 거룩합니다. † †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¹⁷ 참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고서, 그 자리에 돌올리브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¹⁸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 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가지인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¹⁹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이려고 저 가지들을 잘라 냈다.” ²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 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붙인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²¹ 하나님께서 참올리브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²²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자비로우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 ²³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²⁴ 여러분은 본성이 야생인 돌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²⁵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²⁶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 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 § 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니,
그가 야곱*에게서 모든 악을 떨어 버리실 것이다.

²⁷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

† † 11:16 하나님께 드린...거룩합니다 민수기 15장 20절을 볼 것.

¶ ¶ 11:26 성경 구약성경.

§ § 11:26 시온 예루살렘.

* 11:26 야곱 이스라엘 열두 가문의 조상.

† 11:27 사 59:20-21; 27:9.

28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 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3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31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33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34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

35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에게서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겠습니까?” ¶

36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각기 다른 믿음의 몫에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4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꼭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5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각기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선물이 예언⁵의 능력이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십시오. 7 섬기는 능력이면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능력이면 가르치십시오. 8 격려하는 능력이면 격려하십시오. 베푸는 능력이면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지도하는 능력이면 부지런히 다스리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면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9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의 편에 서십시오. 10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자신보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11 여러분에게 맡겨진

† 11:34 사 40:13.

¶ 11:35 욥 41:11.

§ 12:6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¹²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니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¹³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¹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¹⁵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¹⁶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¹⁷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조심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¹⁸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¹⁹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줄 것이다.’”²⁰ 오히려 “네 원수가 배고플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원수가 목말랄 때에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²¹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십시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13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²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 것에 반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³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⁴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⁵ 그러므로 받게 될지도 모를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⁶ 또한 양심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을 바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일에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⁷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모두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십시오. 조공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존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율법이다

⁸ 어느 누구에게도 진 빚을 갚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⁹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 12:19 주께서 말씀하신다...갚아 줄 것이다 신 32:35.

†† 12:20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 여기에서의 이미지는 원수 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 12:20 네 원수가...쌓는 것이 된다 잠 25:21-22.

¶¶ 13:9 간음하지...탐내지 마라 출 20:13-15, 17.

사랑하여라.”[§] §라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¹⁰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¹¹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¹²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¹³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진탕 먹고 마시는 연회나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¹⁴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14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그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²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 ³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 틀림없이 설 것입니다.

⁵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저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⁶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⁷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⁸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⁹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의 주도 되고 산 사람의 주도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⁰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정죄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알보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¹¹ 성경 §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살아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¹²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 § 13:9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 13:12 밤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상징으로 쓰였다.

† 13:12 낮 앞으로 다가올 좋은 시대의 상징으로 쓰였다.

‡ 14:2 어떤 사람은…먹습니다 유대의 율법은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유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고 나서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 14:6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는 ‘고기를 먹는 사람’.

§ 14:11 성경 구약 성경.

** 14:11 사 45:23.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아라

13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대신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4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15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그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6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바른 처신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18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는 일과 서로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20 음식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1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로 해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의심을 가진 채 먹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15 믿음이 튼튼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여 그를 기쁘게 해 주고,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을 제가 받았습시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4 옛날에 쓰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음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이러한 인내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8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 14:16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글자 그대로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 15:3 당신을…받았습니다 시 69-9.

것이었습니다.⁹ 그것은 또한 이방 사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

¹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¹¹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¹²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자손이 일어나리니,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분이시라.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¹³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에게서 희망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¹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¹⁵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¹⁶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⁷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¹⁸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 오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¹⁹ 그리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²⁰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 ¶ 15:9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 15:9 시 18:49.

* 15:10 신 32:43.

† 15:11 시 117:1.

‡ 15:12 이새 다윗의 아버지.

¶ 15:12 사 11:10.

§ 15:19 일루리곤 남쪽으로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서쪽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²¹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

²²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 하였으나, 이 지역에서의 일을 끝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²³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제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던 터여서, ²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얼마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즐거움을 누린 뒤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⁵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²⁶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²⁷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²⁸ 그러므로 저는 그들에게 이 돈을 안전하게 전한 뒤에 스페인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²⁹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갈 때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복을 가득 가지고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³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힘쓰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³¹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³²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³³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부탁

16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매 되는 피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²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답게,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준 후원자입니다.

³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⁴ 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 ‡}의 교회들이 모두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⁵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도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⁶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⁷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로,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 나보다

** 15:21 성경 구약성경.

† † 15:21 사 52:15.

‡ ‡ 16:4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 16:7 선교사들이고 글자 그대로는 ‘사도들이고’.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⁸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친구인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볼로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¹ 나와 같은 유대 사람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²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매입니다. ¹³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어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¹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⁵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¹⁶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¹⁷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에 울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¹⁸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¹⁹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²⁰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발아래에서 사탄을 짓눌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²¹ 나와 같이 일하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유대 사람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² 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²³ 나와 온 교회에 자기 집을 내주어 쓰게 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 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²⁴ § §

²⁵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셨습니다. ²⁶ 이제는 그 비밀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²⁷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 **16:24 24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24절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사본에는 20절 끝에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부분이 없다.

* **16:27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25-27절이 없거나, 14장 23절이나 15장 33절 뒤에 온다. 또 어떤 사본에는 24절이 27절 뒤에 온다.